

Economy Brief

악재 소나기, 다시 닫힌 호르무즈

Economy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fnsec.com

Check Point

미국-이란간 재충돌이 놀라운 이벤트는 아니지만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부담스러운 이벤트임
유가 상승폭도 거슬리지만 전고점을 위협하는 미국 10년 국채 금리 수준에 금융시장이 민감할 수 밖에 없음
악재 소나기가 내리고 있어 일단은 소나기가 그치기를 기다려야 할 시점. 그리고 악재 소나기가 그치는 신호는 미국 국채 금리의 하향 안정임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닫혔다

호르무즈 해협이 MOU 이전으로 상태로 돌아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한층 강경해졌다. 협상을 염두에 둔 제한적 공격에서 지도부 제거 및 이란의 나탄즈 핵 시설 폭격 등 강력한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강경 기조로 선회했다. 어찌보면 FAFO와 TACO를 넘나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하면 미국-이란간 재충돌이 놀라운 이벤트는 아니지만 악재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부담스러운 이벤트임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간신히 유가 하락으로 진정되던 인플레이션 열기에 또 다시 기름을 붓는 상황이 되었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카드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선박에 선적된 화물의 20%를 안전보장 통행료 명목으로 받겠다고 선언했다. 이란과의 재충돌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 급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통행료 징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국제 유가의 또 다른 급등으로 작용했다. 통행료 징수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만약 통행료가 징수된다면 관세조치와 유사하게 물가 압력을 높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국제유가(WTI)는 전장대비 9.42% 급등한 배럴당 78.14달러에 마감했다. 문제는 유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란간 군사 충돌이 당분간 지속될 여지가 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마저 다시 닫힌 상황이어서 유가 추가 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란 사태외에도 러시아의 경우 수출 금지도 국제 원유시장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재료다.

미국 10년 국채 금리 역시 급등세를 이어갔다. 미국 10년 국채금리는 13일 종가기준 4.6216%로 7월들어서만 16bp나 급등하면서 지난 5월 19일 전고점 수준인 4.663%에 바짝 다가섰다. 현 분위기를 고려하면 전고점을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유가 급등 현상이 다소 진정되던 미 연준의 매파 성향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케빈 워시 의장이라도 유가 급등으로 물가 압력이 더욱 높아진다면 금리동결을 막기는 역부족일 수 있다. 케빈 워시의장도 트럼프 대통령과 미 연준 사이에서 금리정책과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큰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유가 상승폭도 거슬리지만 전고점을 위협하는 국채 금리 수준에 금융시장이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악재 소나기가 그칠 때까지 지켜볼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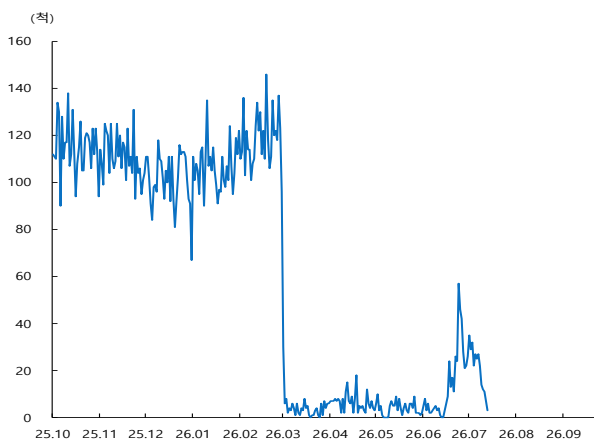
당사의 13일자 보고서(꿈틀거리는 리스크 속 안전지대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교롭게 악재가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제기된 악재들이 당장 글로벌 경제 침체를 유발시키거나 또 다른 위기를 촉발시킬 수준은 아니지만 상황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미군-이란간 군사 충돌이 더욱 확산 양상으로 전개될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악재 소나기가 내리고 있어 일단은 소나기가 그치기를 기다려야 할 시점이다. 늘 그랬듯이 트럼프 대통령 생각과 입장은 상황 변화에 따라 늘 변화해 왔음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악재 소나기가 그치는 신호는 미국 국채 금리의 하향 안정일 것이다.

그림1.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로 다시 불거진 3고(고유가-고금리-고달러) 현상. 유가 상승폭보다 전고점 수준에 육박한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부담스러운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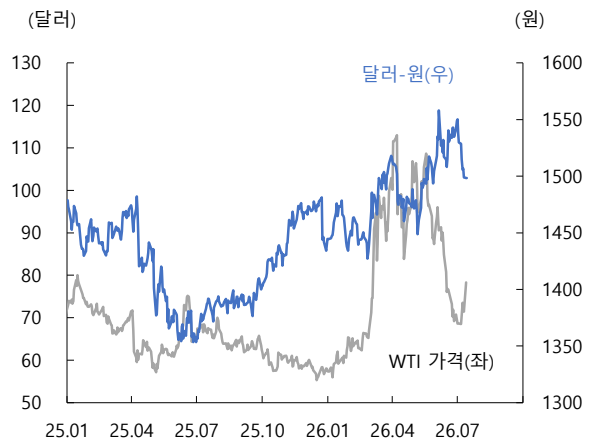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수가 다시 급감



자료: Bloomberg, CEIC, GPIF,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그나마 유가 반등에도 수급 이슈로 달러-원 환율은 안정세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박상현)
-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